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토끼와 자라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에 벗어난 토끼에 관한 이야기를 즐긴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토끼, 자라, 용궁, 판소리

한국문화 • **목표** :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판소리로도 즐긴 것을 안다.
• **요소** : 수궁가(판소리)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토끼, 자라, 강충강충, 엉금엉금
• **표현** : 토끼는 강충강충 뛰어 다녀요.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 다녀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토끼와 자라' 이야기예요.

토끼와 자라는 모두 동물이지만 사는 곳이 달라요. 토끼는 땅에 사는 동물이고, 바닷속에서는 살지 못해요. 자라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지만, 땅에서도 잠시 다닐 수 있어요. 오늘은 토끼가 자라를 만나 바닷속 용궁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토끼와 자라'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깊고 깊은 바닷속에 크고 아름다운 용궁이 있었어요. 그 용궁에는 임금님이 바닷속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일났다! 임금님이 깊은 병에 걸리셨다!”

신하들이 잘 듣는다는 약을 구해 왔지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한 의원이 찾아와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 그 약이 무엇이오?”

“땅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입니다. 토끼의 간을 따뜻할 때 먹으면 임금님의 병이 나으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땅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닷속에 사는 신하들은 땅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저는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니 토끼의 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자네는 정말 용감하구나.”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던 자라는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자라는 토끼의 그림을 품 안에 넣고 땅 위로 올라갔어요.
 “토끼라는 동물은 귀가 길고 눈이 빨강고 꼬리가 짧은 모습이야.”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토끼를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라는 깡충깡충 뛰어나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자라는 얼른 토끼 앞을 막으며 물었어요.

“저기, 혹시 당신이 토끼인가요?”

“네, 제가 토끼 맞는데요?”

토끼가 긴 귀를 쫓긋 세우며 대답했어요.

“저는 깊은 바닷속 궁전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끼님이 매우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모시러 왔지요. 바닷속 용궁에 가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용궁은 맛있는 음식과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지요.”

자라는 토끼를 달콤한 말로 속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있겠어요?”

토끼는 자라의 등에 타고 바닷속 용궁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 군사들이 토끼를 밧줄로 꿰꿰 묶었어요. 그리고 붙잡은 토끼를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허, 네가 토끼라는 동물이나?”



이야기 들려주기

“네, 저는 토끼가 맞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를 붙잡으셨나요?”

“내가 깊은 병에 걸렸는데, 따뜻한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토끼는 그제야 자라의 말에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토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임금님, 자라가 미리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픈 사람들이 제 간을 탐내서 깊은 산속에 퐁퐁 숨겨 놓았어요.”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자라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제 배를 갈라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영원히 간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저를 땅으로 보내주면 간을 찾아올게요.”

토끼의 말에 마음이 다급해진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토끼의 말대로 해라!”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워 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가서 간을 찾아와라.”



이야기 들려주기

“으이그! 바보야!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니?”
토끼는 깡충깡충 숲 속으로 도망쳤어요. 자라는 뛰어가는 토끼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에는 빠르게 뛰는 동물 친구도 나오고, 느리게 기는 동물 친구도 나왔어요. 누군지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짹짹 뛰는 토끼, 엉금엉금 기는 자라예요. 짹짹과 엉금엉금은 모습을 흉내 내는 말이에요.

짹짹 토끼와 엉금엉금 자라의 이야기는 ‘수궁가’라는 판소리로도 전해지고 있어요. 판소리는 이야기에 노래를 엮어서 신나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도 부를 수 있다니, 그 노래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판소리 ‘수궁가’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수궁가’를 찾아보세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자라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갔지만, 토끼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토끼처럼 당황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도록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